

사사기 20. “종교적 부패 2. 단 지파의 행동들” [18 장 1 절-31 절]

1. 들어가기

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을 섬기던 미가의 집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18 장은 제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,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. 단 지파는 그때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에 쫓겨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은 5 명의 정탐꾼을 뽑아 북쪽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, 그 과정에서 이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, 거기서 미가의 신상과 그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들은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고 레위인은 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. 이후 ‘라이스’라는 지역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단 지파는 600 명의 군사를 무장시켜서 라이스를 정복하게 하였는데, 이때 저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. 이 사실을 안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 저들을 쫓아가 보았지만, 결국 자신이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여 그 땅 이름을 ‘단’이라고 바꾸고 비로써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.

2. 그때에 왕이 없었고... (1 절)

- 1)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!
- 2) 그 결과 -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 (= ex) 미가의 집.
- 단 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음.

➤ 참고: 당시 단 지파의 상황

- 단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땅과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과 17 개의 성읍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지정 받음. (수 19:40-47)
- 그러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남. (삿 1:34-36)
- 마지막 사사 삼손의 영향 - 마지막 2 성 ‘소라’와 ‘에스다올’만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음
But !, 이 또한 블레셋의 핍박을 받으며 쫓겨나게 된 상황.
- 그 이유를 사사기 저자는 저들의 종교적 타락과 불신앙에 맞추고 있음!!

➤ 생각하기 1 - 만약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고, 그 왕의 통치를 따라 하나로 단합되었다면, 단 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까요?

- 우리는 가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데로 하면서, 아무 간섭도 없이 살면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,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!
(예: 교통법규가 없다면?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겠나?)

곧 인간은 언제나 올바른 규칙이 있어야 하고, 공의로운 왕의 다스림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.

- 3) 그런데, 이스라엘 민족에겐 공의로우신 왕이 있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,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되고 단합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.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.

3.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정탐꾼들 (2-7 절)

- 1) 단 지파는 용맹한 5 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들이 이주할 땅을 정탐케 하였습니다.
- 2)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, 미가의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
- 3)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정탐꾼들의 반응:
 - ①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 듣고 - 누가? 왜? 무엇을? 하는 지 물었음.
 - ②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기를 청함!
 - ③ 이에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해 주었음.

- **생각하기 2 - 미가의 제사장을 만난 정탐꾼들이 한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? 만약 내가 정탐꾼중의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**

- 성도의 삶 -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!
-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물어야 하는 것!
 - 하나님의 성소 = 실로, 아론 계열의 참 제사장 = 실로
- 자신을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➡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

- **주목 - 미가의 제사장 말처럼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했을 때, 실제로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. (7 절)**

- 그러나 우리는 그의 축복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!!
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자,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곧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.

➤ **참고 : 라이스**

-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는 성읍으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..
- 지형적으로 서쪽으로는 레바논 산맥, 동쪽으로는 헬몬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
-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식민지였기에 자체적 군대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
- 그러나 시돈은 중간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으로 인해 라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음..

4. 정탐꾼들의 보고 (8-13 절)

- 1)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.
- 2) 10 절 주목 -
“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. _____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”
- 3) 단 지파 사람들은 _____명의 군사를 일으켜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출전하였습니다.(11 절)

5. 미가의 우상을 강탈한 단 지파 (11-26 절)

- 1) 정탐꾼들은 라이스로 가던 중 형제들에게 미가의 집에 들러 그의 우상들을 가져 가기를 청했습니다.
- 14 절, “...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..”
- 17 절, “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..”
- 2)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의 우상들을 가져 나오는 것을 처음에는 제지했지만, 곧 저들의 권유에 타협하며 기뻐하며 미가의 집을 떠났습니다.
- 18 절, “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”
- 19 절, “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.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
- 20 절, “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”

■ 주목 - “마음에 기뻐하였다”

“자기 눈에 옳은 대로,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, 기쁜 대로 행하는 것”은 당시 사사 시대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! -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제사장이란 이도 마찬가지!

- 3) 미가와 그의 친구들은 신상과 제사장을 되찾으려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갔지만,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. (22-26 절)
- 25 절, “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”

26 절, “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
집으로 돌아갔더라”

- **생각하기 3 – 만약 미가와 제사장이 진실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믿고 확신했다면
어떻게 했을까요?**

**6. 라이스를 점령한 단 지파 사람들은 신상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
되었습니다. (27-31 절)**

- 1) 단 지파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쳐 정복하고 그 땅의 이름을
_____ 이라고 고쳤습니다.
- 2) 단 지파 사람들은 _____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정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
지파가 되었습니다. (30 절)
- 3)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은 _____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이었습니다.

- **생각하기 4 –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게
되는 것은?**

- **생각하기 5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결심한 것이 있다면?**